

세계 최초 '듀얼넷북' 개발한 디앤비

4명 소수 정예 벤처기업의 뚝심

지난 7월1일,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듀얼넷북(Dual Net Book)'이라는 단어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갑작스레 떠올랐다. '세계 최초로 두 개의 LCD 화면이 있는 넷북이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는 기사가 연합뉴스에 의해 보도된 직후다.

LCD 화면 1개와 키보드로 구성돼 있는 일반적인 노트북과 달리 듀얼넷북은 키보드를 과감히 없앤 대신 10인치(25.4cm) 크기의 LCD 터치스크린 2개가 달려 있다. 이 독특한 제품은 멀티태스킹(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을 하는 것)에 매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위 화면으로는 동영상을 보면서 아래 화면으로는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문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한쪽 화면에 가상 키보드를 띄워 놓으면 된다.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며 세로로 세워 놓고 전자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듀얼넷북을 개발한 디앤비(dnb)의 김용준(53) 대표는 마이더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대기업도 개발하지 못한 것을 종업원 4명에 불과한 우리가 개발해 시제품까지 만들었다"고 기쁨을 토하고 "앞으로 제품을 더욱 소형화, 경량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덧붙여 듀얼넷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용준 대표는 "외국의 대기업도 개발하지 못한 것을 종업원 4명에 불과한 우리가 개발해 시제품까지 만들었다"고 기쁨을 토하고 "앞으로 제품을 더욱 소형화, 경량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덧붙여 듀얼넷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진, 김영대 기자

디앤비는 외국에서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국내 기업과 손잡고 제품화하기를 희망한다.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김영대 기자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기술력

연합뉴스 기사가 나간 후 디앤비 직원들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수많은 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언론 매체의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런 제품을 기다렸다”고 반색하며 “꼭 한번 써보고 싶다”고 연락해 오기도 했다. 김 대표는 “기사 한 번의 홍보 효과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며 “연합뉴스와 기자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는 2달이 채 안됐지만 사실 디앤비의 듀얼넷북은 해외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10’에서 디앤비의 부스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 비슷한 개념의 제품이 몇몇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거나 간단한 이미지 정도는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은 세계 최초였기 때문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일본 도시바, 소니 등 세계적 IT회사 관계들이 디앤비 부스를 찾아왔고 17개 외국 언론사로부터 집중적인 인터뷰 세례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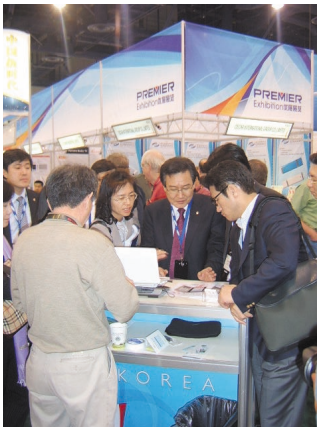
올 3월에는 미국 컴덱스와 더불어 세계 2대 정보통신박람회인 독일 하노버 세빗(Cebit)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제품을 직접 본 MS 관계자는 “아이패드의 진짜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면이 1개 달린 태블릿PC인 아이패드로는 진정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그렇게 많은 외국 기사가 찾아왔지만 한국 기자는 한 명도 오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하고 “이제라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밝게 웃었다.

유능한 뱃사공은 잔잔한 바다에서 키워지지 않는다

지금 ‘듀얼’이라는 단어는 김 대표에게 ‘희망’을 가리키지만 한때는 ‘시련’이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그는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 전산실에서 10여 년 근무한 후 컴퓨터제품 딜러로 변신해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제법 수입도 괜찮았고 사업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남의 물건만 다룰 게 아니라 내 물건을 팔고 싶었다.

그래서 제품 개발자들을 모아 1999년에 ‘듀오킨텍’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2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나온 첫 제품이 바로 ‘듀얼 모니터’였다. PC 본체와 일체형으로 LCD 화면 2개가 달려 있으며 피벗(화면을 세로로 돌려서 보는 기능)이 가능하고 화면을 각기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어 마주보고 토론이나 제품 설명 등에 특히 유용한 제품이었다. 시제품을 들고 자신 있게 투자처를 찾아다녔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자금 지원은커녕 번번이 “도



디앰비의 기술력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10'의 디앰비 부스. 사진제공: 디앰비

대체 이런 물건을 어디에 쓸 거냐?”는 핀잔만 들었다. 결국 2006년에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다.

“제품을 너무 일찍 개발했다.” 김 대표가 자평하는 실패의 원인이다. 실제로 2~3년 뒤부터 외환달러와 주식증가인, 의료인, 디자이너 등 2개 이상의 모니터가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 대표는 2008년 재기에 나섰다. 이번에는 듀얼넷북이라는 아이디어와 함께, 뜻이 맞는 개발자 3명과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지금의 디앰비 식구들이다. 남들은 못 들어가 안달인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이도 끼어 있었다. 그렇게 모인 4명의 직원과 겨우 2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세계 최초의 듀얼넷북 시제품은 개발됐다.

김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 합심해서 1년여 만에 시제품까지 개발해 냈다”며 직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해봐야 성공의 열매가 더 달콤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유능한 뱃사공은 잔잔한 바다에서 키워지지 않는 법”이라며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절실

세계 최초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제품 출시는 한 발 뒤질 수도 있다. 디앰비와 경쟁하던 MS가 듀얼넷북과 같은 개념의 ‘쿠리오’ 개발을 중단한 만큼 세계 최초의 제품화도 당연히 디앰비 몫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리브데모 W100’이라는 제품의 양산화 계획을 발표한 도시바에 ‘최초’ 타이틀을 넘겨줄 공산이 커졌다. 국내 벤처기업이 훌륭한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

발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주춤하는 사이에 출발은 늦었지만 자금력이 충분한 외국의 대기업에 자리를 내주는 격이다.

디앰비는 외국에서 잇단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한다. 김 대표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국내 기업과 손잡고 싶어 한다.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물건이 된다 싶으며 과감하게 투자해 줘야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는 게 김 대표의 지론이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규정이 까다롭고 그나마도 당장 돈이 되느냐만 따지는 근시안적 잣대를 들이대는 풍토에서는 벤처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위한 희망의 선순환 구조

디앰비는 2009년 9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무상 입주했다. 각계 전문가가 모인 센터 운영위원회의 입주기업 심사에서 작은 회사 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최초 2년의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1년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최장 3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참고로 경기창업보육센터는 다른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 다른 점이 있다. 처음 입주할 때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재심사를 통과해 1년 연장이 결정되면 1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상 입주 혜택 이외에 사업 보조금까지 주는 창업보육센터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에 대해 3년간의 과정을 ‘졸업’한 후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성공한 선배 기업들은 센터에 대한 지원금 기부로 ‘보은’하고 있다. 휴대전화 모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올해에만 5억 원의 지원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들이 당국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면 다시 신설 중소기업들을 돕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인 셈이다. 센터의 최원학 창업지원팀 주임은 “선순환 구조를 갖춘 유일한 창업보육센터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센터를 졸업한 모든 중소기업이 성공해서 후배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준 대표도 “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디앰비는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잊지 않았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